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유족·봉사자 등 구술 내용  
100여 작품에 담담히 담아  
광주여성재단 24일까지



##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할게요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스물 여섯이 됐을 경빈이 엄마 전인숙씨는 ‘아이에게 못해 준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했다. 태권도를 좋아하는 경빈이를 ‘억울하게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나중에 만날 때 창피한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살아왔다고도 했다. 그녀만이 아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길 바라며 304명 아이들을 기억하는 부모·형제·친구·이웃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다.

10일 광주여성재단 3층 북카페 은샘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글씨전 ‘그날을 쓰다’ 북토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그날을 함께 기억하며 연대의 마음을 보냈다.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색 우산에 적힌 ‘기억과 연대-삼백네송이 꽃들에게’라는 글귀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 현상이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광주여성재단 허스토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19년 출간된 ‘4-16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에서 출발했다. ‘304명의 꿈이 빛이 되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4-16기억저장소’(소장 이지성)가 펴낸 ‘416 그날을 말하다’는 세월호 유족, 세월호관련 사람들 100명을 인터뷰해 100권의 책으로 엮은 전집이다. 구술에 참여한 이들은 참사 이전의 삶, 팽목항과 진도에서의 경험, 자녀에 대한 기억, 참사 이후 개인과 가족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깨달음 등에 대해 담담히 답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좋은 곳에 갈거니까 겁내지 말라고 사랑한다고.”(주민 엄마 김혜경·황해경 씨)  
“힘들고 아플 때 그 때 나를 일으켜주는 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준영 엄마 임영애·바람 씨)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내 딸아 한번만 안아봤으면 따뜻한 밥한끼만 먹여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엄마 잊으면 안돼 알았지? 예진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워하다 다시 꼭 보자”(정예진 엄마 박유신·김희영 씨)

이번 전시는 100권을 55명의 작가가 읽고 마음을 담아 100작품을 붓으로 써내려간 작품을 만나는 자리다.

전시 참여 작가들은 30여년간 신영복체를 연구해온 김성장씨가 이끄는 세종손글씨연구회 회원들과 신영복 선생의 사상과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된 ‘사단법인 더불어숲’ 회원 등이다. 시인이자 서예가인 김성장 소장은 한자의 서체와 현대 감수성을 접목한 ‘한글 민체’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운 서체와 시대 정신을 알리고 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를 강렬한 손글씨로 보여준다. 글씨의 힘과 글의

힘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주며 글과 함께 어우러진 그림도 인상적이다.

“야구선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구는 그냥 사회 일반 취미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하고 싶은 꿈을 못 하게 막았죠. 살아있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른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종근이의 그림과 함께 만나는 종근 아빠 안영진씨의 사연은 먹먹하다.

“이번 손글씨 전시에 참여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됐어요. 기막힌 사연들이 담긴 글을 읽고 또 글씨를 쓰면서 제 자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담긴 글씨는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잊고 있었던 ‘그날’에 대해 줄곧 떠올리면서 그날의 진실을 찾는 데 작은 힘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토크에서 마이크를 잡은 참여작가 배숙씨의 이

아기도 울림을 준다.

김성장 소장은 “손글씨가 시대와 소통할 수 있을까? 서체가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 자문하며 전시를 기획했다”며 “상처는 상처끼리 보듬어 주며 마땅해진다”는 생각으로 글씨로 상처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준 55명의 작가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날을 쓰다”전은 글씨를 쓴 작가와 구술한 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관람객들의 마음까지 담겨 ‘글씨가 날개를 달고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전국에서 이르고 있다. 지난 4월1일 목포 신항 세월호 기억공간과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출발해 서울 명동성당, 대전, 옥천, 부산 등을 거쳤으며 앞으로 김해, 전주, 인천 등 전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판사 걷는사람(대표 김성규)은 작품과 구술 부분을 기획편집해 책 ‘그날을 쓰다’를 펴내 힘을 보탤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 시끌벅적 ‘엄마의 밥상’... 그리운 어머니

광주 남구 류미숙 초대전...21일까지 양림미술관



서양화가 류미숙 작가의 작품 주제는 ‘엄마’다. 5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엄마의 식당은 그녀의 작업실이 됐고, 엄마의 손때가 묻은 공기, 접시, 도마 등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첫번째 개인전 ‘엄마의 밥상’전을 찾은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에서 자신의 엄마를 보곤 했다.

류미숙 작가의 ‘엄마의 밥상 2022’전이 오는 21일까지 남구청이 운영하는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올해 작업한 신작 30여점이 나왔다.

주제는 동일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기법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줬다. 접시 등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엄마와 자신의 ‘손’, 그리고 ‘음식’을 테마로 잡아 작업했다.

접시, 공기 등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오브제가 빠져나간 대신, 그 공간을 채우는 건 ‘손’이다. 작가는 늙은 엄마의 손 대신, 시계를 거꾸로 돌려 젊은 시절 엄마의 손을 상상하며 그려나갔다.

“평생 일만 하신 엄마의 손은 투박하고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어요. 그 손을 생각할 때면 항상 마음이 아팠죠. 이번 신작에서는 매니큐어도 칠해 드

리고 아름다운 엄마의 손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엄마가 늘 그 ‘손’으로 만들어주셨던 다양한 음식을 함께 배치했죠.”

작품 속에는 고등어를 손질하는 엄마의 손, 가지 무침을 만드는 엄마의 손이 등장한다. 또 계란 후라이, 보리밥 위에 얹힌 열무김치, 따뜻한 밥 한공기와 고소한 김 등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전처럼 완성된 ‘밥상’의 모습 대신, 음식 하나 하나,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던 엄마의 모습이 담겼다.

그림 속 또 다른 ‘손’은 그녀의 손이다. 함께 등장하는 엄마의 손과 딸의 손은 구분되지 않는다.

“엄마가 작품의 주인공이어서 그런지 제 전시에 오신분들은 작품을 보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시더군요. 화면에 등장하는 손은 보시는 분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한 사람은 따뜻한 밥을, 한 사람은 후라이팬에 담긴 달걀 후라이를 들고 있는데 ‘함께 무엇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좋다고 하시네요.’

류 작가는 가을에는 광주문예회관 공모에 선정돼 오는 9월16일-10월1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도 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에는 접시 등에 작업한 예전 작품부터 올해 신작까지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호텔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31일까지 남도수목회 전시  
부채·서예·조각 작품 등 다채

개성 넘치는 그림이 그려진 부채 한점 구입해 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부채 그림과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갑성의 교류전’이 오는 31일까지 ACC호텔 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진)

ACC 호텔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남도수목회(회장 박수봉) 회원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예작가들이 참여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서양화·서예·조각 작품도 전시한다.

부채에는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시원한 바다, 화사한 모란꽃과 동백, 노을진 바닷가 풍경, 별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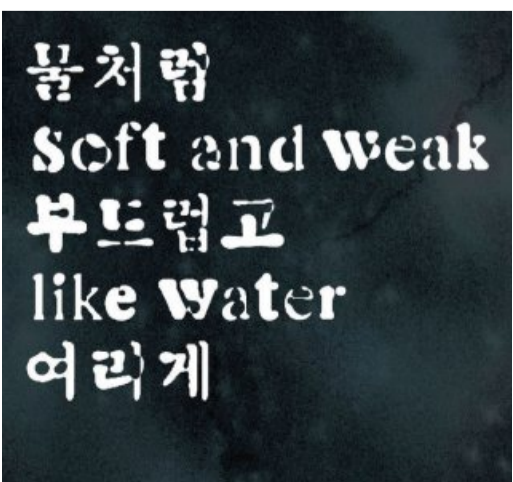
쏟아지는 밤하늘 등이 담겼다. 또 검은색과 흰색, 번짐과 농담 등 수묵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공예품으로는 도자기, 향주머니, 락종이로 만든 인형, 염색 스카프 등을 만날 수 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그림이 담긴 부채는 10만원에 판매하며 가족으로 만든 지갑과 은으로 제작한 액세서리 등 공예품도 구매할 수 있다.

참여작가는 박광식·이민식·곽수민·정평남·배교연·홍정호 작가 등 남도수목회 회원들과 서양화 부분의 한희원·문명호, 서예의 정광주·문인화 화 이병오·황기환, 조각의 김연희·정철, 민화의 강정숙·이화영, 서각의 박태수 등이며 수공예협회 회원들도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주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EIP(Event Identity Program)를 11일 발표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주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는 “세상에서는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도덕경 78장 ‘유약어수’(柔弱者勝於水)에서 차용했다.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물은 은유이자 원동력, 방법으로 삼아 지구를 저항, 공존, 연대와 돌봄의 장소로 상상한다는 의미를 담은 주제다.

주제를 형상화하는 EIP는 물이 지닌 부드럽고도

강하며 포용력 있는 속성을 시각적으로 탐구하는데 주력했다. 시그니처에 나타나는 타이포그래피는 물의 층상함과 말라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글자 사이를 관통하는 곡선의 형태는 강함과 부드러움, 경계의 모호함 등을 내포하고 있다. 포스터는 물 위에 떨어져 유연하게 확산되는 먹의 특성을 모티브로 구성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EIP는 미술과 패션, 음악, 브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문석 디자이너가 개발했다. 그는 브르노 비엔날레와 타이포자칭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남녀노소 국악이 좋다 국립남도국악원 13일 토요일무대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3일 오후 5시 토요일 상설 ‘국악이 좋다’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남도아리랑의 흥겨운 세마치장단을 중심으로 한 국악관현악 ‘남도아리랑’을 시작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곡과 민요인 ‘사공의 노래’, ‘벚노래’, ‘떠나가는 배’, ‘경상도 벚노래’를 연속으로 들려준다.

그리고 ‘신도름 셋째거리 놀이’, 윤선도의 시를 연주한 관현악 ‘아부사사자 중 달의 춤’과 ‘여

름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12가사 이수자이자 2016년 KBS국악대상 민요상 및 대상 수상한 소리꾼 김용우가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오혜원과 함께 가곡과 민요를 함께 부른다.

토요일무대는 무료이며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문의 061-540-404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